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대화와 갈등 해결 화법 교육

김서윤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9437)

- I. 머리말
- II. <유효공선행록>의 효 관념과 간언 발화의 지향점
- III.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발화 구성 양상과 대화 전개 방식
- IV.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장면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 방안
- V. 맺음말

I. 머리말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과 집단의 역할이 분화됨에 따라 현대인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경험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 사회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 해결에 필요한 대화 방법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어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가문소설 작품의 대화 장면에 나타나 있는 갈등 상황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문소설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소재로 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말하기 사례를 풍부하게 보여준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엄정하게 질책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심을 다해 간언하는 장면들을 수록하고 있는 가문소설의 대화 장면들은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말하기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설득하는 간언 발화는, 아랫사람이 윗사람과의 유

대가 손상될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윗사람을 비판하고 언행의 변화를 조언하는 말하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문소설의 간언 대화 장면들은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는 화자와 청자가 갈등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하는지를 보여준다. 수직적 인간관계가 중시되었던 전통 사회에서 간언의 화자는 신중하면서도 조리 있게 윗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했으므로,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말하기로서는 가장 정련된 형태의 말하기 모델을 가문소설의 간언 장면들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간언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간언의 일종인 상소문의 설득 전략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화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군주의 체면을 보호하되 권위적 논거 활용과 일관된 논리 구축을 통해 설득 효과를 높이는 것이 상소문의 내용 구성 전략임이 구명되기도 하였으며(염은열, 1996), 공감적 발언과 논쟁을 교차시킴으로써 긴장감을 자아내는 것이 상소문의 독특한 설득 전략임이 알려지기도 하였다(최인자, 1996). 『고문진보』에 수록된 상서류가 주장과 논거의 분량 차이를 통해 내용 구성의 완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는 점, 상대에 대한 칭송과 화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자찬을 통해 독자를 감정적으로 설득한다는 점도 밝혀졌다(조성운·김윤정, 201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공손함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설득 전략들을 세밀하게 논의하였으나, 공적 상황에서 문어로 소통된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상적 갈등 상황에서 간언이 어떤 양상을 띠었는지를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전소설의 대화 장면을 중심으로 가족 간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일상적 말하기 방식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조씨삼대록>의 작중 인물들이 설득하는 말하기를 할 때 사물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논하며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길고도 치밀하게 담화를 구성한다는 점이 조명되기도 하였으며(김현주, 2015), <보은기우록>에서 부자 갈등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토대로 해소되어 가는 장기간의 과정이 분석되기도 하였다(최수현, 2017). 이러한 선

행연구들은 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되 구어체로 된 대화 장면을 포착하여 실제 갈등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을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되, 가문소설 속 간언 대화 장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간언 발화의 내용 구성 방식과 대화 전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가문소설은 <유효공선행록>이다. <유효공선행록>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서사의 주축을 이루는 작품으로, 아들 유연이 간언을 통하여 아버지 유정경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과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¹⁾ 부자 갈등을 다룬 여러 가문소설 작품 중에서도, <유효공선행록>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간언하는 아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연의 간언은 유정경의 행동을 즉각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정경이 유연의 진의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상대방과 장기적 유대 관계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작중인물의 간언 화법을 분석하여, 갈등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유효공선행록>은 아버지 유정경과 두 아들 유연, 유홍 형제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문 내 계후 갈등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유홍은 유정경에게 유연을 포함하여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정치적으로도 유연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은 유정경과 유홍에게 효와 우애를 실천하며 고난을 감내함으로써 결국 두 사람을 감화하고 장자의 자리에 복귀하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명성과 지위를 얻는다. 또한 유연은 자신을 포함하였던 유홍의 아들 유백경을 입양하여 유씨 가문의 후계자로 삼음으로써 가문의 화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II. <유효공선행록>의 효 관념과 간언 발화의 지향점

유교 문화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언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모 자녀 간 친밀한 관계 자체의 중요성이다. 전통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우선하는 특별한 관계였으므로,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녀는 대외적으로는 부모의 잘못을 감추면서 은밀한 간언을 통해 부모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이는 <유효공선행록>에서 논어의 ‘섭공(葉公)’ 이야기가 자주 인용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인이 엇디 성인의 말습을 니즈시니잇고? 부위즌은호고 즈위부은호여 디직기 중의니 아히 비록 그른 일이 이시느 대인이 맞당이 이럿터 호섬즉지 아니호고 대인이 비록 쇼즈를 칙호시는 일이 과도호시나 쇼직 맞당이 원치 못홀 거시오 즈식이 아비 스랑홈과 아비가 즈식 어엿비 녀이믄 턴눈의 정니니 엇디 가이 적은 분과 쇼쇼협의의 이서 섭공의 향당을 효측호리잇가 (권지일, 48-49)²⁾

위의 인용문은 유연이 누명을 쓰고 유정경에게 체벌을 당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유정경의 질책에 대답하는 대목이다. 인용된 유연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는 서로 잘못을 감추어 주어야 했으며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화합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부모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을 피하되, 부모가 수긍할 만한 개별적인 설득의 전략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녀의 도리였다. ‘부모의 뜻이 만일 이치에 해로운 것이면 기운을 온화하게 하고 얼굴빛을 화하게 하며 음성을 부드럽

2) 이하 <유효공선행록>의 인용은 규장각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을 교감한 최길용의 교주본(2018)을 기준으로 한다.

게 하여 간해서 반복하여 아뢰어 반드시 들어 따르시게 하기를 기약하여야 한다.’고 한 『격몽요결』의 준칙은 이러한 자녀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³⁾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의 간언을 거부할 경우, 자녀는 설득을 포기하고 부모가 극단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 <보은기우록>의 위연청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는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아버지 위지덕과의 관계에 매몰되기보다는 아버지의 세계를 떠나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가문 외부의 사람들과 폭넓게 접촉하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힌다.⁴⁾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자기 세계 내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부자 갈등을 해결한다. 위연청은 초반부에만 위지덕에게 몇 차례 간언할 뿐 줄곧 위지덕과 거리를 둔 채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반면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은 자발적으로 가정을 떠나는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버지에게 구속되어 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된 유연은 낙심하여 과거 시험마저 포기해 버린다. 유연은 유정경과 대화하며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이는 그가 추구하는 효가 위연청의 효와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연은 유정경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아들로 인정받고자 하는 관계 지향성이 매우 강하기에, 아버지와의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간언을 통해 돌파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연청과 유연의 차이는 간언에 대한 유교 경전들의 관점의 차이와도 관련된다. 『논어』, 『맹자』, 『예기』 등 유교 경전에서는 대체로 간언에 대해 신중한 관점을 취하며 부자간 갈등을 경계하지만, 『효경』과 같이 자녀가 분명한 사회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간언할 것을 권장하는

3) “父母之志, 若非害於義理, 則當先意承順, 毫忽不可違, 若其害理者, 則和氣怡色, 柔聲以諫, 反覆開陳, 必期於聽從.”

4) 위연청은 여섯 살에 가정을 떠나 친척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와는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하며, 가정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기 소신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혼인 상대를 선택하는 등 독립된 자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연과 다르다.

경우도 있다. 자신의 삶을 부친과의 관계와 분리하는 위연청의 효가 『논어』 등의 관점에 가깝다면, 자신의 신념을 부친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유연의 효는 『효경』의 관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⁵⁾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집념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고통 받는 데도 외면하는 유연의 효는 작품 내에서 비판적으로 조명되기도 하지만(김문희, 2011; 박일용, 1995; 이승복, 1991; 조광국, 2005 7; 정혜경, 2014; 최윤희,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공선행록>의 서술 시각은 전반적으로는 유연을 옹호하는 쪽에 가깝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던 유효는 결국 몰락하는 반면 아버지와의 유대 관계를 중시한 유연은 가문 안팎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유효공선행록>의 서사 전개이기 때문이다. 당장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상대와 솔직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유연의 효가 <유효공선행록>의 향유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효의 실천 방안으로서 유연의 간언 발화가 작품 속에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참여자들의 정체성은 세 가지 층위로 구분된다.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은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관계적 정체성(relational identity)은 특정 관계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정체성(communal identity)은 사회 집단 내에서의 역할과 의무로써 규정된다(Hecht, et al., 2003: 214-219). 가문소설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가문 내부의 대립 관계뿐 아니라 가문 외부의 정치적 대립 구도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에,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정체성이나 관계적 정체성의 충돌로 보이는 갈등이라도 심층적으로는 사회적 정체성 갈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위연청과 위지덕의 경우, 한쪽은 선비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반면 다

5) 부자간 간언에 대한 유교 경전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는 심도희(2011)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른 한쪽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기에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연청은 위지덕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위지덕을 능가하는 인적·물질적 자원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사회적 정체성의 갈등 구도를 경쟁 구도로 전환시키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을 펴는 것이다.

반면 유연은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정경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유연은 사람의 평판에 민감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반면 유정경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권문세족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이 강한 인물에 비해 둘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도 볼 수 있는데(조광국, 2005년: 150), 유연은 이러한 갈등을 부자간 대화를 통해 극복하려 한다. 자신과 유정경의 사회적 정체성 대립을 부자 관계의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것이 유연의 갈등 해결 전략이라 볼 수 있다. Hecht 식으로 말하면, 유연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관계적 정체성이 상호 관통되게 한다(Hecht, et al., 2003: 216). 그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 대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대화 상대와의 관계적 정체성과 통합하는 ‘협력적 재구성’을 시도한다(임택균, 2014: 215-217).⁶⁾

위연청은 유학을 숭상하면서 불교와 도교에도 관심을 가지며, 위지덕을 도와 상업 활동에도 관여하는 등 유연한 세계관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이는 그가 특정 사회 집단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개인적 정체성이 강한 인물임을 시사한다. 반면 유연은 사람의 일원이자 유씨 가문의 후계자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회적 정체성이 확고한 인물이다. 유연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의

6) 사회 집단도 결국 관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회적 정체성’과 ‘관계적 정체성’ 두 개념은 때로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Hecht 등의 정체성 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하여,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간 관계 내에서 규정되는 정체성은 ‘관계적 정체성’으로 보았으며 양자의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는 공적 집단 차원의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으로 규정하여 논의하였다. 달리 말하면, 본고에서 ‘관계적 정체성’은 주로 ‘가족 내 정체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정체성’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 집단이나 사회 세력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뜻한다.

식과 신념을 부친의 요구에 맞게 바꾸거나 포기하지 못하므로 부친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는 위연청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면서 위지덕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과 대조된다.

갈등 당사자들이 각자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연청의 방식이 충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지만, 통상 갈등의 당사자들은 서로 충돌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유연의 방식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유연의 간언하는 말하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본고에서는 〈유효공선행록〉에 등장하는 간언 발화의 구성 원리와 간언 대화의 전개 양상 전반을 고찰하기 위해 보그랑데(Beaugrande, 1997: 152-156)가 제시한 ‘텍스트의 선형성 제약 원리’ 항목들을 참조하였다. 보그랑데에 따르면 화자 또는 필자는 텍스트의 선형적인 흐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①표현 내용을 적절한 단위들로 나누어 열거하고(listing) 구분하고(pacing) 통합하며(merging), ②내용 단위들의 중요도와 초점을 적절히 조절하고(Core & adjunct, Loading), ③앞부분의 발화와 뒷부분의 발화가 긴밀히 조응되도록 한다(Looking back & ahead). 이러한 원리는 각각 ①간언 발화의 내용 단위 설정과 구조화 방식을 분석하고, ②각 내용 단위의 순서 배치와 분량 배분을 점검하여 발화의 어떤 부분이 특별히 더 강조되는지를 살펴며, ③간언 발화를 포함하는 앞뒤 대화의 거시적 전개 구조를 조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III.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발화 구성 양상과 대화 전개 방식

1. 간언 발화의 구성 방식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은 유정경의 행위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어긋남을 밝히며 유정경의 사회적 정체성 변화를 요구한다. 예컨대 유정경이 옥사를 원칙대로 처벌하지 않자, 유연은 권문세가와 사족 공동체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언급하며 사족 집단의 입장에서 일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간언 내용은 화자와 청자의 갈등이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갈등임을 명시하며, 화자가 청자와 사회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소통을 시도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가)

- ㉠ 대인의 물근 정수를 희이 감히 의논홀 비 아니로되 생각건디 옥체의 무단이 원고를 죄주고 원범을 드스리지 아니미 가치 아난지라 대인이 엇지 뼈 이곳 치 하시니잇고(...)
- ㉡ 뇨공이 비록 대신이느 형식 간스홀고 죄목이 희이하니 적실홀진디 가히 호발도 용사치 못홀 거시니 원컨디 대인은 직삼 상찰하샤 세가권문의 국법 어즈러이느 형실을 업시하시고 고단홀 스족 육하는 풍속을 쓰러브리게 하시면 성상의 만행이오 아야의 디션이시리이다. (권지일, 10-11)

㉠에서 유연은 먼저 ‘옥사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인의 신념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개인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상대와의 갈등을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정경이 침묵하자, 유연은 ㉡에서처럼 곧바로 갈등 구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대신인 뇨공을 엄

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법의 기강을 높이고 사족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경의 옥사 처리는 단지 원칙을 무시하고 옥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권문세가의 권위가 사족 집단 전체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기에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로써 유연은 자신이 권신들과 대립하는 사족 집단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유정경과 자신의 사회적 갈등 지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유연은 강형수의 옥사 처리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유정경에게 재심리를 요청하는, 좀 더 온건한 내용으로 간언을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권문세가와 사족, 나아가 국왕 사이의 대립 구도를 일깨우며 유정경의 사회적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화제를 확장하여 자신과 유정경 사이의 갈등이 사회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

- ㉠ 희익 십세 전의 어미를 일코 대인의 어엿비 너기시를 님스와 형테 상의하니 비록 늑덕의 회굴과 조로의 부미를 효측지 못흐오나 거의 큰 죄의 노으가지 아닐가 헛더니 불초흐미 커 오날날 이 지경의 니르니 아히 죄는 만스무석이 오나
- ㉡ 쏘흔 싱각컨디 붉은 세상을 홀이오지 못홀 거슨 삼강이라 희익 이제 무삼 사름이 되엿느니잇고 형실을 슈 양광의 비기시니 양광은 텃지라도 머리를 보 전치 못흐엇거든 흐믈며 희익 선비 되어 어느 늦츠로 세상의 돈나리잇고 텃 지를 부양흐미 용납 홀썩히 업스니 감히 대인을 원망흐미 아니라
- ㉢ 이 허물과 얹치로 안연이 님신양명흐죽 엇지 혼곳 희아의 무상흐믈 니르리 오 대인의 혼즈치 못흐믈 시비홀 빅오 아의 신상의도 불평흐미 이시리니 일 이 이 지경의 니르러는 나종이 중요홀만 곳지 못흐니 불초흐 아히 귀박흐 명도로 고요히 이셔 황양의 선침을 즈임흐고 아오로써 문호를 부디홀과 현양 부모흐를 의탁흐여 조히 세월을 보니면 이 쏘흔 깃분 비라 엇지 호발이느 폐

당항을 노흐오며 칙흐시를 원흐미 이시리잇고 아히 직덕이 쇼활흐고 효의 게으르며 겹흐여 몸의 깃친 병이 이셔 썩썩 아득흐니 싱각컨디 계상이 오리지 아니흐여 즈하의 슬프를 깃칠가 두리느 비오 비록 장슈흐나 쏘 즈식이 될 줄 아지 못흐니 봉사의 큰 쇼임을 당치 못홀지라 님의 아오로써 밋지시니 션세를 니룰진디 흐 가디 즈손이오 무덕흐니 유덕흐 대 도라보내믄 방가의 상식라 엇지 족히 이 연고로 부족흐미 이시리잇고 다만 아이 효우흐니 고인을 썩로고 쇼즈의 허물 고치미 세상 쫓기의 이셔 분운한 시비를 면흐면 쏘흔 만형이라 하엿더니 금일 엄교를 드르니 황감송눌흐여 죽을 쏘흘 싱각흐미 진퇴를 아지 못거이다 (권지이, 56-59)

유연은 종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비난을 받고 폐장된 후 서당에 칩거하는데, 그러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 과거에 응시하라고 명하자와 위와 같이 간언한다. 먼저 ㉠에서 그는 효에 대한 자신의 각별한 신념을 강조하며 개인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자신이 추구하던 효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과거를 보라는 부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에서는, ‘삼강’이라는 유교 규범에 비추어볼 때 폐장 사건으로 부자간 인륜이 이미 어긋난 상황에서 자신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선비답지 못한 처신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선비가 되어 어느 낮으로 세상에 다니겠느냐’는 물음은, 유연이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견지하며 부친과의 갈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비들 사이에서 중시되는 ‘삼강’의 가치를 내세우는 대목에서, 유연이 선비들의 평판을 중시하며 자신의 처신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유정경의 명에 순종하고 싶지만, 자신에게는 사회적 정체성이 더 중요하며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생각할 때 부친의 명이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연의 입장이다.

유연은 이처럼 부자간의 갈등을 사회적 차원의 갈등으로 규정한 뒤, 갈등 해소의 단서를 자신과 유정경을 둘러싼 구체적 관계 속에서 찾기 시작한

다. ㉔에서 그는 아우가 출세하고 자신은 은거해야 세 부자가 모두 세상의 시비를 면하고 가문의 명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이, 유정경과 유홍을 비롯한 가문 구성원들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유연은 자신과 유정경, 유홍이 긴밀한 상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유연 자신은 유정경과 유홍의 명예를 보호해 주고, 유정경과 유홍은 유연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상보적 관계를 맺자고 설득하는 것이다.

사회적 정체성이 특정 집단의 규범과 평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적 정체성은 대화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특수한 관계 맥락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조율된다. ㉔이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을 피력한 부분이라면, ㉔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이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가문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초점화되고 있다. ㉔에서 표명된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거나, ㉔에서는 가족과 공유될 수 있는 의미로 구체화된다. 이는 화자의 사회적 정체성이 청자와의 관계적 정체성 속에서 재구성됨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연은 사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삼강의 이념이 유정경, 유홍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을 지닐 수 있는지를 숙고하게 된다. 즉, ㉔에서 표명된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은 ㉔의 발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강화된다.⁷⁾

발화의 효율성 면에서만 보면, ㉔만으로 간언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다. 만약 유연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상대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간언하였다면, 유정경은 좀 더

7) 선행 연구에서는 작품 후반부에서 유연의 효가 가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더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조혜란, 2015: 168), 이는 곧 가문주의라는 집단적·사회적 정체성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적 정체성과 통합되지 못할 때 설득력을 잃게 됨을 뜻한다.

쉽게 유연의 간언을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대화 참여자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려는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갈등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고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 둘 필요가 있다. 유연의 간언이 그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표명에 비중을 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연의 간언은 비록 유정경의 태도를 즉각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정경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유홍이 속한 만귀비 당이 실각하고 유홍의 죄가 드러난 뒤에야 유정경은 유홍의 계락을 깨닫고 유연의 결백함을 알게 된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계기로, 가정 밖에서 유연과 유홍의 사회적 평판과 위상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정경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 유홍, 뇨정, 만귀비 세력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데, 결국 유연과 자신의 갈등이 사회적 차원의 갈등이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회적 편향성을 반성하게 된다.⁸⁾ 사회적 정체성을 표명하는 데 무게를

8) 서두에서 유정경은 유연의 간언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죽식의 항복을 맞지 못하니 죽으리도다’(권지이, 60)라든지, ‘네 맞당이 심육흔 디은을 뉴림혀 원망을 겁피 말미 울켜놀 이제 나의 꾸지즈를 골슈의 박아두고 폐당흔을 씌는 듯하여 내 도로혀 무류하고 붓그러워 지성으로 빌물 듯지 아니니 비록 무지하나 너를 보미 붓그럽지 아니라 이러무로 금야의 부지 혼 듯고서 심회틀 니르고 죽어 죄를 속호노라’(권지이, 54-55)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유정경은 유연과 자신의 갈등을 가족 내 부자 갈등으로만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권위로써 아들을 제압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고 유홍과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후반부에서 유정경은 비로소 유연의 사회적 평판과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며, 과거 자신이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전율’하는 반응을 보인다. ‘상이 전일 드르신 빈 잇는지라 즉시 성의빅 뉴정경을 힐척혀 무르시니 뉴공이 불승 전를혀 올흔 디로 강형슈의 죄 주를 고하니 (...) 뉴공이 뇨정의 초스를 드르미 평싱 연으로써 형슈에게 회피를 맞다 하여 꾸짓던 일이 텅나흔 디 도라가니 홍의 심술을 크게 씌다라’(권지늑, 10-11)라는 대목에 서술된 유정경의 놀람과 깨달음은, 유연과 유홍의 사회적 평판과 위상에 대해 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잘 보여준다. 유정

둔 유연의 간언 발화 구성 방식은 이러한 장기적 갈등 해소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연의 친아들 유우성, 양자 유백경의 간언도 내용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 유우성의 경우, 유연이 정 부인과 절연하겠다며 자신과 어머니 중 한쪽을 택하라고 명하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다)

㉠-1) 어미 이전의 죄를 지었다 하나 조뵈 임의 샤혀여 브르미 계시고 ㉠-1) 수절 신고하시든 천신이 감동하리니 야애 엇지 용사치 아니시니잇ㄷ ㉠-2) 희익 처음으로 부지 만나 죽을지언정 가히 썩나지 못홀 거시오 춤아 즈모의 젓 먹이신 정을 굶지 못홀지라 ㉠-2) 모친이 만닐 빙어 모즈 꺾들진디 쇼지 빙어를 효측하리니와 모친의 묶은 결은 빙옥을 뒗들진디 ㉠-3) 엇진 고로 즈식이 되어 박명홀를 슬허히지 아니코 도로혀 버리기를 타연이 하리잇가 (권지철, 74-75)

㉠-1과 ㉠-2에서 유우성은 ‘수절’이라는 사회 규범적 가치를 근거로 어머니를 옹호하며 유연에게 어머니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한다. 고난 속에서도 정절을 지킨 어머니의 인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 이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반면 ㉠-1), ㉠-2), ㉠-3)에서는 ‘자식이 되어 어머니가 고통 받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가?’를 물으며 혈육의 정에 호소한다. ㉠이 정절을 장려해야 할 사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 부인의 성품을 타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걸맞게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 ㉠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재결합한 가족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 부분이다.

㉠에서 표명된 유우성의 사회적 정체성은 정절을 중시하는 사림 집단의 정체성이다. 이러한 유우성의 사회적 정체성은, 장자 자리에 복귀한 후로

경은 과거 자신이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을 폄하하고 오판하였음을 뒤늦게나마 깨달으며,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유연과의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유씨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자의식이 사립으로서의 자의식보다 더 강해진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과 충돌한다. 유연은 정 부인의 절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가문을 모욕한 정 추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는데, 이는 유연의 사회적 정체성이 사립 집단보다는 가문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반면 유우성은 정 부인의 절개를 그 자체로서 높이 평가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사족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까닭에 부자간의 갈등은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우성은 가족의 특수한 관계적 정체성에 기대어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에 나타나 있듯이 유우성은 조부에 대한 존경심, 오랜 기다림 끝에 아버지를 만난 기쁨, 고난을 무릅쓰고 자신을 보살펴 온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며 현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들 상호 간에는 정서적 지지와 위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유우성에게는 가족 내 관계 회복이 시급한 문제이므로, ㉠의 내용 단위들만으로도 간언의 취지는 전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 내용 단위를 병치한 것은, 가족의 관계 정체성을 근원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사회적 정체성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유연, 유우성, 정 부인이 가족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연이 정 부인을 정씨 가문의 일원으로서만 대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족 공동체의 보편적 관점에서 정 부인의 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과 ㉡의 긴밀한 병치 구조는 이러한 화자의 양면적 문제 해결 관점을 보여준다.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숨은 사회적 갈등이 드러날 때, 양쪽의 문제를 동시에 화제로 삼으며 대화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의 간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간언 발화의 초점화 방식

담화에서 어떤 부분이 초점화되는지는 내용의 배치 순서와 분량 배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내용 배치 순서의 측면을 살펴보면, 유연의 간언은 먼저

화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명한 후 화자와 청자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적 정체성을 언급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관계적 정체성보다 사회적 정체성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현재 화자와 청자 사이의 갈등이 어떠한 사회적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소통의 폭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의미가 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소해 보겠다는 구상이 발화 구성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화 구성 순서는 부부간 간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라)

- ㉠ 군의 위인이 범인이 아니라 엇디 문득 양광호는 궤도를 흐며 또 무슨 아스호
 뜻이 있느뇨 태백이 위를 폐홀지언정 죽으미 업고 대순이 우물과 집 우히 불
 을 피호사 증증네불격간호시니 이제 니르히 그 효성을 일코느니 만일 순으
 로써 부명을 한호여 죽으미 이신즉 엇디 죽히 순이라 흐리오 이제 군이 대인
 의 죽이고죽 호실 니 업스되 폐당호를 붓그려 호고 으을 봉스호를 이다라 죽
 분필스호려 하니 평석의 순편호던 형실이 어딤 잇느뇨 부의 칙호시미 잇시
 나 효순호미 인즈의 홀 비라 이럿듯 어즈러오니 승순호 도리 아니로소이다
- ㉡ 만일 군이 몸이 병드려 죽기의 니른즉 대인과 죽식 죽인 악명을 끼치고 속속
 이 만일의 미명을 어드며 공의 불효불통호미 일세의 죄인이 되리니 원컨디
 슬피쇼서 (권지이, 22-24)

(라)는 폐장된 후 괴로워하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유연에게 정 부인이 건넌 말이다. 정 부인은 먼저 ㉠에서 부자간에 지켜야 할 ‘효성’과 ‘효순’의 도리를 일깨운다. 자녀는 부모에게 핍박받더라도 순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신념을 먼저 전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념은 결국 태백과 순 임금의 고사를 숭앙하는 사족 집단의 일원으로서 화자가 지내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그 후 ㉡에서는 유연이 계속 음식을 거부하다가 병들어 죽을 경우 부친과 동생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게 될 것이며 유연 자신도 후손

들에게 비판을 받게 될 테니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권고하며, 정 부인 자신과 유연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적 정체성에 호소하였다.

이 두 내용 단위 중 앞의 것을 먼저 제시하여 화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명시한 것은, 청자의 행동이 화자와의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행동임을 말하여 소통의 범주를 넓히고자 한 것이다. 정 부인은 유연이 폐장 사건을 혹 부자간의 개인적 갈등으로만 받아들여 원한을 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물음은 정 부인이 유연과 자신의 관계를 사족 집단 내의 사회적 관계로 규정하고 유연에게 이를 확인받고자 함을 뜻한다. 정 부인은 단지 유연을 손쉽게 설득하여 현재의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유연의 부부 관계를 확장된 사회적 맥락에서 점검하려는 의도로 대화에 임한다. 이를 통해 정 부인은 유연에 대한 자신의 간언이 단순히 현재의 특정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 관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도 맞닿아 있음을 유연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간언을 이루는 내용 단위의 분량 배분을 보면,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담화에서 사회적 정체성과 관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각각의 내용 단위는 대체로 균형을 이룬다. (라)에서처럼 화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성인의 고사나 경전을 인용할 경우 앞부분의 분량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 앞서 살펴본 (나)에서처럼 화자와 청자를 둘러싼 관계 맥락이 폭넓게 검토될 경우 뒷부분의 분량이 더 길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다음 (마)에서처럼 두 가지 내용 단위가 분량의 균형을 이룬다.

(마)

- ⑧ 히이 그옥이 싱각호건디 부즈는 조용흔 디 합흐미 웃듬이라. 전일 대인이 비록 폐당흐시미 일시 과도흐나 임의 폐장호여 세월이 오리디 아나셔 다시 운위흐미 전도호거늘 못츄넌 고치지 아니시니 즈식이 되어 거역흐미 순회 아니오 순종흔즉 아히 본 뜻을 일흐니 오직 읍혈홀 싹틔이로쇼이다

- ㉠ 슈연이나 희이 스당의 뵈오미 복식이 다른지라 선군의 삼년이 몸의 이시니
 신직 감이 최마를 벗고 금복을 낚지 못홀 거시오 몸의 병이 이시니 스현홀
 기리 업슨지라 이 일을 흥호여도 날호여 홀디니 무어시 밧부리오 홀며며 덩
 녀로써 스당의 현알코즈 하시니 오직 선효는 엇더하신 유종이관디 니고의
 무리로 호여금 감이 총뵈라 칭호여 신위의 나아가게 흐리잇가 이 더욱 희이
 썸리는 비라 디인이 구타여 용납고즈 호신즉 더의 인형 되기를 기다려 일의
 츠서를 일치 아닐 거시니 이 희아의 지성 쇼원이로소이다
- ㉡ 우성이 비록 영민하나 너무 발호호여 공순호 품이 적으니 만일 엄히 곶아치
 지 아닌즉 함위 텃하경박즈르 흐리니 맛당이 스랑을 준절이 호실 비오 쏘 큰
 그르시 아니니 일없이 문한으로 소임케 하시고 쏘 빅경 빅명의 총혜호미 제
 아버지께 느리지 아니나 빅명은 너모 슈발하니 구든 품덜이 아니로디 빅경은
 관후인자호여 쇼즈의 쇼교이니 믇음의 흠이호미 오린지라 맛당이 희아의 즈
 식을 삼아 우성의 독신을 선케 호고자 호느니 대인은 직삼 상양호샤 지원을
 조츠쇼셔 (권지팔, 50-53)

위의 대목은 유정경이 유연을 장자의 자리에 복귀시키기로 결심한 뒤, 친족들을 모아 복장을 선포할 테니 준비하라고 명한 데 대한 유연의 답변이다. ㉠에서 유연은 부자간의 도리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근거로 유정경의 명령에 온전히 찬성하기도, 이를 거역하기도 어려움을 밝힌다. ‘순효’의 도리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즉각 복장 의식을 준비해야 하지만, 폐장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장 의식을 치르는 것 또한 달갑지 않아 망설여진다는 것이 ㉡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연은 개인적 신념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복장 의식을 감행하는 것은 국가와 가문의 예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친의 명령에 반대하는 뜻을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복장을 서두르는 부친과, 신중히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려 하는 자신의 갈등을 국가와 가문에 대한 사회적 정체

성 갈등으로 규정하여 반대 의사를 개진한 것이다.

㉔에서는 새로운 화제가 도입되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추가된다. 유연은 아들 유우성을 훈계해야 할 자신과 유정경의 책임을 강조하며, 경박한 유우성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복장 의식 전에 먼저 유백경을 가문의 후계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자신의 복장 의식을 유백경 입후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 내 관계적 정체성을 상대를 설득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다. 유연은 자신과 유우성의 부자 관계, 유정경과 유우성의 조손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유우성을 선도하기 위한 가족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복장 의식을 서두르기보다는 입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다.

㉕과 ㉖이 분량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유연의 간언은 그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와 함께 상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의미를 함께 나타내게 된다. 국가와 가문의 예법 규범에 충실하고자 하는 화자의 사회적 정체성은 그러한 예법 규범에 맞게 가문의 후손들을 훈육해야 할 화자의 청자의 고유한 관계 정체성과 통합되면서 한층 더 공고해지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 정체성은 국가와 사회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정체성의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역시 한 단계 심화된다. ㉕과 ㉖의 균형은 이러한 양자의 상보적 관계를 반영한 담화 구성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간언 대화의 전개 방식

간언 대화와 그에 대한 답변이 전개되는 거시적 양상을 보면, 대체로 청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간언을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므로 간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간언 자체를 폄하해 버리면서 대화가 종결되고 만다.⁹⁾ 화자

9) 유정경은 유연의 간언을 ‘능언으로 군자의 혀를 비껴 말을 막’는 행위로 규정하며(권지이, 58-59), 유연 또한 유우성의 간언을 ‘쇼크의 교혜능변’으로 폄하하며 불쾌감을 표현한 바

와 청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므로, 간언이 즉각 청자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청자가 간언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예컨대 앞의 (라)에서 살펴본 정 부인의 간언에 대한 유연의 다음과 같은 답변을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바)

쇼싱은 일세의 죄인이라 엇디 스릅 디홀 안면이 이시며 신세 궁박하며 부조형테 인륜을 폐하여시니 무슨 므옴으로 세상을 뉴련히리오 불초를 조칙히니 용납홀 곳이 업고 죽고조 허미 쏘 만전홀 일이 아니라 가슴의 몽친 거시 이셔 귀운을 거스리니 밥을 먹지 못하고 사름을 보미는 늦출 깎고조 허니니 엇디 조의 교칙홀 줄 알니오 싱이 평석의 조에게 기친 은혜 업고 이제 환란을 일체로 허미 가지 아니니 모로미 천당의 도라가 죄인을 싱각지 말고 기리 평안하라

㉔-1) 지어 대순 태복으로 경계함은 내 실노 당치 못하니 턴하의 엇디 올치 아닌 부피 이시리오 슈연이나 싱이 어려서부터 글을 넓어 넷 스릅의 효도를 흠모하여 숙야의 섭심허미 거의 큰 죄의 색지지 아닐가 허더니 불효허미 오늘 이 지경의 밋고 쏘 조의 니른 바 폐장을 이들나 허미 아니오 대인을 원망허미 아니라 오직 하늘을 보지 말며 색홀 뵈지 못홀 죄명이 일신의 이시니

㉔-2) 부형이 부록 혼 목숨을 용사하시나 싱이 스스로 형벌을 행하여 죽음이 올호디 죽지 못하는 바는 세상이 싱의 죄를 아지 못하고 그릇 가친과 누더기 도라갈가 두리미라 이제 스오일 곡기를 굶치미 다른 뜻지 아니라 모로미 조는 싱의 근심이 죽기를 원하는가 의심 말나 인하여 눈물이 흘러 늦치 가득하고 님으로 조조 피 토하기를 마지 아니하니 쇼제 슬프를 니키지 못하나 계유 참고 위로왈, 군조의 이 거저 므옴을 과도이 쓰기로 비로스미라 원컨디 관심하여 귀체를 도라보쇼셔 (권지이, 22-27)

있다(권지철, 75).

유연은 먼저 부인의 간언에 대해 당황스러운 심정을 표한 뒤 본격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힌다. ㉔-1)은 부인의 간언 중 ‘질책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원망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불효를 행한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이어서 ㉔-2)는 부인의 간언 중 ‘원망스럽고 분한 마음에 곡기를 끊었다가 죽는다면 부친과 아우에게 누명을 끼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결코 죽을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유연은 이처럼 정 부인의 간언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반박하고 있지만, 반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부인의 간언을 수긍하며 부인에게 위로와 공감을 구하고 있다. 부인의 간언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상세한 해명을 통해 자신의 힘든 상황을 부인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연은 ‘부모에게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부인의 간언에 대해, 부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친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괴로울 뿐이라고 해명하는데, 이는 부인이 염려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자기 감정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 유연은 ‘자녀는 함부로 목숨을 끊어 부모에게 누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간언에 대해서도, 실제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괴로움을 숨김없이 표현한다.

이처럼 유연은 부인의 간언 내용을 충실히 되짚어 해명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부인의 염려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 규범 및 가족 관계의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안하고 괴로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위의 대화에서 유연은 폐장 자체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보다도 부친에게 죄인으로 지목받은 부끄러움이 더 크다는 점, 죽지는 않겠지만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점을 부인에게 호소하고 정 부인도 결국 유연을 위로하며 대화가 마무리된다.

간언 대화가 이처럼 심층적인 소통의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화자의 간언이 신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 (라)에서 정 부인은 유연의 행위를 비판하되 유연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였다. 정 부인은 유연과 유정경의 관계를 순 임금과 고수의 관계에 빗대며 유연의 괴로움에 공감하였고, 평소 유연이 보여주었던 ‘순편하던 행실’과 비범한 인품에 대해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유연에게 심리적 지지를 표현하였기에 이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사)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

넌 팔직 무상하여 천신만고를 지냈고 다만 우성만 두어 이제 동지와 형식 네 야
야의 증염하는 조식이 되었시니 이 뼈근 넌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비라 네 만일
슈족의 정이 잊거든 디판은 비록 상공이 다스리셔도 소소한 일은 네 당당이 좋
요로이 그러쳐 저 아히로 하여금 제 디인귀 득죄하나 조식 되기를 면케하죽 넌
엇지 홀노 널노빠 모건의 정뿐이리오 실노 구텐 타일의 결초보은하미 이시리라
빅경이 계상지비 왈,

㉔-1) 현광의 위인은 히아의 밋칠 비아니로디 그 괴상을 제어하시노라 엄준하
시나 툇툇 엇지 과려하시느이잇고 다만 조교의 히아로빠 현광을 골으치기로빠
일크라샤 결초보은을 비기시니 이 진실노 히아의 브라는 비 아니로소이다

부인의 일시 일은 비는 본디 빅경의 돈후하를 상제 신이하는 고로 우성을 가라
쳐 동용진퇴를 일체로 하과조 하는 뜻이로디 말이 밋쳐 마디를 썬치지 못하여
도로혀 빅경은 쇼이하무로 이 말이 잇는가 드룬디라 부인이 이 괴식을 보고 안
셔이 우어 왈,

히이 나를 아지 못하미로다 넌 엇지 너를 낮비 녀기는 말이리오 회피 여츠흔 고
로 말흔 비라

경이 썬다라 타연이 스투 왈,

㉔-2) 불초하미 이 곳트니 엇지 조교를 승당하리잇고 현광이 이제 직좌하고 모
친이 직상하시며 계쉬 직위 혼 곳의 배플디니 아의 괴상이 농회 풍운의 세 어든
곳트여 능히 장축하 기리 업거늘 쏘 계유 슈렴하는 비 야야 안전이로디 툇툇

미양 일으려니 흐믓며 희아의 앓히리잇가 과도흔 거죄 일변 이시면 혼 번 기용
 혼죽 브람이 귀에 지남 갖치 녀겨 종요로이 규정흐미 곳쳐는지라 실노 희아를
 동표지형으로 알진디 감이 이갓치 못홀 거시니 그옥이 붓그릴 색름이로소이다
 부인이 점두 왈,
 이 심히 심분 님 밋옵의 합흐니 우성은 부명과 형교를 아지 못흐는 사름이니 텃
 하 죄인이라 하면목으로 넘어세상흐리오 (권지집, 26-28)

유백경은 ‘유우성을 조용히 훈계해 준다면 결초보은하는 심정으로 보답하겠다’는 정 부인의 부탁에 대해 먼저 ㉔-1)과 같이 답하며 ‘친형제 간의 도움을 결초보은에 빚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이는 정 부인에게 양자인 자신을 친아들 유우성(현광)과 다름없이 친근하게 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후 유우성에 대한 자신의 본격적 간언을 부인이 스스럼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비하는 단계의 발언이다. 이어서 ㉔-2)에서는 유우성의 기질은 자신이 혼자 조용히 제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유우성을 훈계하는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유백경은 먼저 청자가 자신의 간언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간언을 시작한다. 형이 아우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데도 정 부인이 이를 ‘결초보은’할 일로 간주한다면, 이는 정 부인이 자신을 아직 친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에 유우성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백경의 입장이다. 유백경은 정 부인에게 자신과 유우성을 차별 없이 대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후 비로소 유우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본격적인 간언에 앞서 먼저 대화의 범위를 전망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어지는 발화에 대해 청자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여 간언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에는 유우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다.¹⁰⁾

10) 유백경의 간언을 들은 정 부인은 유우성의 경솔함을 직접 꾸짖고, 이후 유백경이 유우성

만약 유백경이 유우성의 문제는 자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준비 단계 없이 바로 제시했다면, 유백경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를 느끼고 있던 정 부인으로서선 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양측의 관계를 조정하고 화제를 다루는 관점을 조율하는 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간언을 주고받아야 함을 유백경과 정 부인의 대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IV. 〈유효공선행록〉 간언 장면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 방안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화법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을 보여준다. 간언의 화자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명하여 청자와의 갈등 지점을 드러내되, 청자와의 고유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단서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발화 구성 원리는 ‘먼저 동의하지 않는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 사람의 현재 존재를 최대화하라’는 갈등 해결 원칙에 부합한다 (Stewart, et al., 2005/2015: 539).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장면들은 갈등의 복잡성과 일상성을 드러낸다. 사회적 갈등은 집단 차원의 말하기인 토의, 토론, 협상을 통해서도 다루어질 수 있지만 일상의 대화 충위를 통해서도 인식될 수 있다. 개인 간의 갈등은 일정 부분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성격을 내포하게 마련이므로 개인 간 대화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고 갈등 극복 방안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을 타일러 반성케 함으로써 세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진전된다.

일상생활 속 말하기 중 가장 빈도가 높으며, 참여자들 사이의 높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어교육의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화자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청자의 상황과 필요에 부응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간언은 협력적 갈등 해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¹¹⁾ 화자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언은 회피나 순응, 타협과 구별된다. 또 화자가 청자와 논쟁을 벌여 이기려 하지 않으며, 청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간언은 경쟁적 갈등 해결과도 거리가 있다. 국어교육에서 협력적 갈등 해결의 모델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자 한다면,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장면들을 예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말하기 능력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협력적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때(임택균, 2014: 209), 단순히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주장하거나 언어예절에 맞게 공손한 태도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김윤옥, 2016: 17). 학습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하되 이를 상대와의 관계 맥락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되 갈등을 통해 기존의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대화를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다. 협력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체성과 관계적 정체성 중 어느 한쪽에만 고착되는 말하기가 아닌, 양자를 균형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다.

〈유효공선행록〉을 비롯한 가문소설의 대화 장면들은 그러한 통합적 말하기의 구체적 모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작중 인물들의 대화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관

11) 갈등 해결 방법은 회피, 순응, 경쟁, 타협, 협력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Stewart, et al., 2005/2015: 500).

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원동력을 얻어 긴 호흡으로 전개된다. 유연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갈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정체성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드러내며 이를 상대와 협력적 정체성을 생성해 내는 근거로 삼기 위해 노력한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는 각자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 〈유효공선행록〉의 국어교육적 시사점이라 하겠다.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대화는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간언 발화의 내용 구성 원리와 초점화 방식은 여타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확장하여 적용 가능하다. 개인적 정체성 차원에서는 부각되기 어려운 갈등의 숨은 원인을 사회적 정체성 차원에서 분석하여 공유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대화 참여자들 간 관계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탐색하는 원리를 〈유효공선행록〉을 통해 학습한 뒤, 이에 따라 주변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대화 내용을 구상해 보는 방식으로 문학과 화법 영역을 통합한 수업을 설계해 봄직하다. 대화 내용을 구상한 뒤, 화자의 의도가 발화에 효과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에서는 〈유효공선행록〉의 초점화 방식을 참조하여 발화의 순서와 분량을 조정하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다.

그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나, 토의·토론·협상 등 다양한 말하기 방식별로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분절되어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정민주, 2015: 153). 앞으로는 실제 삶의 맥락을 중심으로 갈등 해결에 필요한 말하기의 원리를 탐구하는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유효공선행록〉을 비롯한 가문소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은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갈등의 복잡함과 난해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문제의식을 환기하므로(박용찬, 2013: 34), 추상적인 화법 원칙들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소설 텍스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효공선행록〉은 개별 간언 발화의 구성 방식뿐 아니라, 간언을 포함한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원활히 전개되게 하려면 화자가 청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신중하게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청자는 간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진솔히 표현하고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유효공선행록〉 대화 장면에서 배울 수 있다.

공감과 배려를 중시하는 현대의 화법 문화에서는 비록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화 방식이 선호된다. 인간관계가 수평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 조언이나 충고는 부정적 대화법으로 간주되어 외면받기 쉽다. 더욱이 급속한 사회 변화로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사회의 각 분야가 전문화되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신념을 드러내거나 타인을 설득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될수록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게 마련이므로,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을 배울 필요성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커졌다.

현대의 화법 문화에서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나 전달법’이다. ‘나 전달법’은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감정과 기대만을 1인칭 화법으로 전달하여 갈등을 완화하는 말하기 방법이다. 이러한 ‘나 전달법’은 갈등 당사자들의 감정과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전달법’에 따라 대화할 경우, 상대의 행동이 화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상대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정체성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서로 불쾌한 감정을 자각하지 않는 한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기에, 굳이 상대의 사회적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상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화법은 더 깊은 층위의 소통을 추구한다. 청자의 특정 행동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 이면의 사회적 정체성 차이를 탐구하고 조율하려 하기 때문이다.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발화에서 화자는 대화의 초점을 ‘현재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에서 청자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차이를 조망하여 상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화자와 청자가 서로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며 충돌을 피하기보다는, 충돌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화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대화는 학습자에게 설득 화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록 상대를 당장 설복할 수는 없더라도 상대와 소통하려는 노력 자체를 중시하였던 전통 사회의 언어문화를 작품 속 대화 장면을 통해 간접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득은 상대와의 대결을 넘어 화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최영인, 2014: 284-291). 현대 사회에서 설득은 즉각 승패가 결정되는 경쟁적 말하기의 형태로 간주되기 쉬운데, 이러한 설득 문화의 한계를 성찰하기 위한 자료로서 <유효공선행록>을 비롯한 가문소설 속 대화 장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통 사회의 언어문화가 내포하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문소설의 간언 장면은 유교의 차별적 인간관계 규범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유독 부자 관계에 간언 대화가 집중되며 부부 관계나 형제 관계는 부자 관계보다 소홀히 다루어지곤 한다. 이러한 관계의 차별성은 작품 내에서도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바(김문희, 2015: 236-238; 이지영, 2015: 98-102), 유연은 부친과의 갈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아내에 대한 부친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유연과 정 부인 사이의 부부 갈등은 점차 악화된다. 부자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에만 애쓰는 유연의 태도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여타의 인간 관계보다 중시하는 유교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현대의 언어문화에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간언 대화는 부모 자녀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두루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떠한 관계에서든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요구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V. 맺음말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분화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국어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갈등을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 의사소통 모델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가문소설 〈유효공선행록〉이 그 한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보고 작중 대화 장면들을 분석하였다. 〈유효공선행록〉은 사회적 정체성이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나누는 간언 대화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말하기의 내용 구성 방식과 대화 전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유연과 유정경 부자의 대화는 비록 즉각적인 갈등 해결로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관계를 심화해 나가는 토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갈등에 대응하는 화법 교육의 제재로 활용할 만하다.

〈유효공선행록〉에서 간언 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대화라고 해서 공손함이나 체면, 예의를 지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간언의 화자는 청자와의 갈

등을 사회적 맥락에서 객관화함으로써 청자와의 소통의 범주를 넓히며,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의 단서를 찾아 나감으로써 청자와의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적극적 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자와 공유 가능한 것으로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대화는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말하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현대의 학습자들이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의 언어문화를 비교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말하기의 효용은 즉각적인 효과를 산출해 내는 능력성만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갈등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능력뿐 아니라 갈등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히고 관계를 심화하는 말하기 능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현대 학습자들은 〈유효공선행록〉과 같은 가문 소설에서 배울 수 있다.

동시에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대화는 전통 사회의 언어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수직적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대화의 제한된 범주와 그로 인한 폐단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에도 관계의 차등화로 인해 대화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의 언어문화를 비교하며 바람직한 대화 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식의 폭을 넓혀 가도록 돕는 것이 〈유효공선행록〉을 비롯한 가문소설의 국어교육적 효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20. 10. 27. 투고되었으며, 2020. 11. 16. 심사가 시작되어 2020.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 성백호 역주(1992), 『동몽선습·격몽요결』,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교주(1976), 『보은기우록 상/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치균·강문중·김수연·홍현성 교주(2019), 『보은기우록』,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최길룡 교주(2018), 『유효공선행록』, 고양: 학교방.
- 최승희 편(1995),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 근대화 과정 연구 I - 2 고전소설 유효공선행록』(김진세·민병수 윤문 및 교열),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 논저

- 김민희(2011), 「〈유효공선행록〉의 인물에 대한 공감과 거리화의 독서심리」, 『어문연구』 39(3), 231-256.
- 김민희(2015),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한국고전연구』 31, 211-245.
- 김윤옥(2016), 「인성교육을 위한 화법교육 방향 - 의사소통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 『화법연구』 32, 1-24.
- 김현주(2015), 「조선후기 서사체에 나타나는 설화화법의 두 양상 -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의 경우」, 『한국고전연구』 32, 457-489.
- 박용찬(2013), 「세대갈등과 문학교육의 전략」, 『문학교육학』 41, 9-40.
- 박일용(1995),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20, 151-176.
- 심도희(2011), 「간언을 통해서 본 유교의 효 사상」, 『동아인문학』 19, 187-212.
- 엄은열(1996),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 77-98.
- 이승복(1991),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162-184.
- 이지영(2015), 「조선후기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83-109.
- 임택균(2014), 「화법에서 정체성의 교육 내용」, 『화법연구』 24, 203-233.
- 정민주(2015),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비한 국어과 “갈등 해결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화법연구』 28, 135-164.
- 정혜경(2014), 「〈유효공선행록〉의 효제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 287-324.
- 조광국(2005),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문의 자기갱신」, 『한중인문학연구』 16, 145-

- 조광국(2005), 「벌열소설의 효 구현 양상에 대한 연구-벌열소설 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 <엄씨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4), 135-161.
- 조성윤·김윤정(2017), 「상서류에 드러난 설득 전략과 교육적 적용-『고문진보』 소재 산문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6, 183-211.
- 조혜란(2015),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141-175.
- 최수현(2017),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문학교육의 한 방안」, 『어문논집』 71, 119-142.
- 최영인(2014), 「설득 화법 집중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연구」, 『화법연구』 24, 271-310.
- 최윤희(2005),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189-209.
- 최인자(1996),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전략과 표현에 관한 연구-〈간폐비소〉와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24, 105-121.
- Beaugrande, R. (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cognition, communication, and the freedom of access to knowledge and society*,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Hecht, M. L., Jackson, R. L. & Ribeau, S. A. (2003), *African American communication: exploring identity and cultur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wart, J., Zediker, K. E. & Witteborn, S. (2015), 『소통: 협력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사회구성주의적 접근』, 서현석·김윤옥·임택균(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원서출판 2005).

〈유효공선행록〉의 간언 대화와 갈등 해결 화법 교육

김서윤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는 일상 대화의 말하기 방식을 구안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 간 갈등 상황에서도 사회적 갈등 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며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말하기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유효공선행록〉을 비롯한 가문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문소설은 유교적 효 관념에 바탕을 둔 간언 문화를 반영하는 대화 장면들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일상 대화 속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에서 간언의 화자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어 상대와의 사회적 갈등 지점을 명시하되, 대화 상대와의 관계적 정체성에 착안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상대와 공유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단서를 찾아 나가는 말하기 방식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간언의 화자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상대와의 관계적 정체성과 통합하여 강화하게 되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적 정체성 또한 확장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성격이 재규정됨으로써 한층 공고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간언 대화의 과정은 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는 하나, 협력적 갈등 해결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간언 대화는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응이나 회피, 타협과 구별되며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적 갈등 해결과도 거리가 있다. 앞으로 국어교육에서는 협력적 갈등 해결 화법의 일상적 모델로서 〈유효공선행록〉을 비롯한 가문

소설의 간언 화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협력적 말하기 방식을 학습하는 한편, 전통사회의 대화 문화를 현대의 그것과 비교하며 대화와 설득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핵심어 간언, 유효공선행록, 사회적 갈등, 사회적 정체성, 관계적 정체성, 정체성 통합, 협력적 갈등 해결

ABSTRACT

A Study on the Conversation Scenes of the Remonstrance in *Yubyogongseonbaengrok*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Improving the Conflict-Solving Speech Ability

Kim Suhyoon

Devising a way of engaging everyday conversations in response to social conflicts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explore the way of such engagemen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family novels, including *Yubyogongseonbaengrok*, which are rich in conversation scenes that reflect the culture of the remonstrance based on Confucian filial piety. These scenes represent how participants reveal and solve social conflicts in everyday conversations. In *Yubyogongseonbaengrok*, the speaker of the remonstrance not only clearly reveals his/her social identity and sets out the point of social conflict with the opponent but also shows the way in finding clues to resolve conflict by reconstructing his/her social identity that can be shared with the opponent by focusing on the relational identity with the conversation partner. Through this process, the speaker strengthens his/her social identity by integrating it with the relational identity with the opponent, and the relational identity of the speaker and listener is further strengthened by redefining the relationship in the expanded social context. The process of these conversations is meaningful in that it enables cooperative conflict resolution. The dialogue is distinguished from conformity, avoidance, and compromise, as it does not deny or conceal the social identity of conversation participants. It is also far from the competitive conflict resolution, as it does not undermine the relational identity between conversation participan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dialectics of family novels, including *Yubyogongseonbaengrok*, as a daily model of cooperative conflict

resolution skills. Through this, learners will be able to learn cooperative speaking methods to cope with conflict situations, compare the conversation culture of traditional society with that of modern times, and have opportunities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essence of dialogue and persuasion.

KEYWORDS Remonstrance, *Yuhyogongseonhaengrok*, Social Conflicts, Social Identity, Relational Identity, Interpenetration of Identities, Collaborative Resolution of Conflicts